우리 복지관은 지금 10.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함께 어르신 마음 살피는 돌봄 지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웰다잉 인식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추모공원의 추모힐링 투어에 참여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추모공원을 방문해 삶의 의미와 존엄한 노후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 어르신들의 모습.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중심 정서 지원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어르신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서 생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영위를 돕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평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돌봄'의 실천이기도 하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와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쉬운 시기다. 이때의 상실감과 고립감은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노후를 경제적 준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자산관리와 같은 외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와 정서적 안정 또한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으며, 고통 또한 나누고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자비(慈悲)'는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함께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업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는 수행의 장이자, 공동체적 돌봄의 실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복지관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자아존중감과 자아통합감 향상 활동,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웰다잉 등 다양한 주제로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본 기관은 2025년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웰다잉 체계화 사업에 선정되고,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했으며, 2026년에는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전문상담사의 상시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더욱 깊이 있게 지원하게 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던 감정들이 안전한 공간 안에서 표현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이 길러진다. 이는 마치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불교의 수행과도 닮아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노인복지관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경로 식당 중심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지관은 그 역할을 넘어, 마음의 외로움까지 보듬는 정서적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내는 일, 그것이 지금 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복지다.

작은 인사 한마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시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 속에서 어르신들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의 이치처럼, 한 사람의 마음 변화는 또 다른 관계와 공동체로 이어진다.

어르신들이 다시 관계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여정은 오늘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의 자리라면, 이곳에서의 작은 돌봄과 연결이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동희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대만불교 포교일기 ⑤ 문정불간치(問政不干治): 종교와 정치의 지혜로운 동행

선거철, 종교가 화합·상생 이끌어야

신록이 짙어지는 6월, 대한민국은 지방선거라는 큰 민주주의의 축제를 앞두고 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선거 구호와 수많은 현수막은 우리 사회의 내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임을 실감하게 한다.

이맘때면 세속의 정치를 멀리해야 하는 수행자가 대중의 삶과 직결된 정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깊어진다.

필자는 이 해답을 평생 '인간불교'를 실천하신 성운 큰스님(星雲大師)의 '문정불간치(問政不干治)' 가르침에서 찾고자 한다.

"정치에 관심을 두되[問政], 정권에는 간섭하지 않는다[不干治]"는 원칙이다.

큰스님께서는 생전에 "우리는 출가(出家)한 것이지 출국(出國)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생의 행복과 직결된 민생 정치에 수행자가 무관심한 것은 방임이라 하셨다.

그러나 경계는 엄격했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을 탐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경계하셨다.

큰스님은 정치화상(政治和尚)이라는 오명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승려일 뿐, 권력을 탐하지 않는다"며 소신을 밝히셨다.

이러한 초정치적 스탠스는 갈등을 봉합하는 평화의 도구가 됐다. 2002년 양안 관계가 단절됐던 시절, 큰스님께서는 오직 중생의 안녕을 위해 양안의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법문사 불지사리(佛指舍利) 대만 이운'을 이뤄내셨다.

정치 관심에도 정권엔 간섭하지 않은
성운 큰스님 원칙, 갈등 봉합 도구 돼
불교, 정치 거리 두고 대중 삶 보듬어야

팽팽했던 정치적 긴장은 종교가 자아낸 평화의 온기 속에서 사그라들었다. 이것이 바로 '관심'을 갖되 '간섭'은 하지 않는 지혜로운 중도의 실천이었다.

특히 대만의 선거 기간에 정파 간의 비방과 대립이 극에 달하자, 큰스님께서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려놓고 '조무임(趙無任)'이란 필명으로 일간지에 선거 평론을 연재하셨다.

백성들의 흔한 성씨인 '조(趙)', 무아(無我)를 뜻하는 '무(無)', 책임(責任)을 뜻하는 '임(任)'을 합쳐 '무사(無私)하고 책임감 있는 평범한 백성'이란 뜻의 이 필명은, 큰스님이 정치를 대하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권력을 쥐거나 교단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의 화합을 염원하는 보통 시민의 마음으로 맑고 정직한 충고를 던지셨던 것이다.

종교가 정치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직 '대중의 행복'을 위해서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 사회는 이념과 정파로 갈등이 깊어지곤 한다.

이때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은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로 편견을 버리고, 누가 진정으로 중생의 아픔을 보듬을 인물인지 대중이 혜안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며, 지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불교가 '문정불간치'의 정신으로 정치와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삶을 보듬을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상생의 정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평화와 지혜가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발원한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⑱ 빛이 그린 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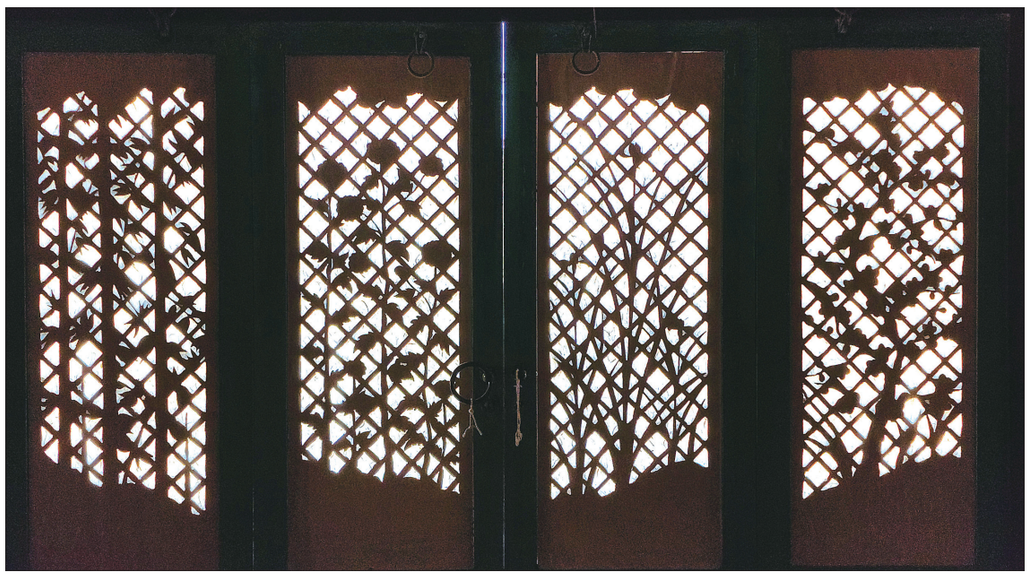
산청 대원사는 도량의 분위기나 매무새가 이를 데 없이 정갈하다. 지리산 천왕봉 동쪽 기슭이 이룬 대원사계곡이 도량을 감싸고 흘러 청신한 기운이 성성하다. 그래서일까. 대원사는 수덕사 견성암, 언양 석남사와 함께 대표적인 비구니 참선 도량이다.

대원사 대웅전 가운데 칸의 꽃살문은 이채롭다. 성글게 짠 빗살 위에 '매란국죽' 사군자를 새겨 올렸다. 조각과 채색 모두 사실적이다. 4폭 병풍을 세워 둔 것 같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2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화가들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문예사'라는 출판사에서 〈현대한국화 명작집〉(1983)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책에 수록될 작가 66명의 작품과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분에 넘치도록 안복을 누린 시절이었다. 그때를 떠올리며 사군자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사군자는 문인화의 대표격이다. 모양을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뜻을 담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글씨 같은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묵으로 그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원사 대웅전 사군자 꽃살문에서 딱히 묵향을 느껴볼 생각은 없었다. 행여나 해서 법당 안으로 들어가자 실루엣으로 드러나는 사군자는 먹그림의 그것으로 재창조돼 있었다. 숨을 고르고 빛이 그려낸 흑백의 사군자를 스마트폰에 담았다. 벽과 문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창조된, 대원사가 그린 사군자다.

손영자 작가



대원사 대웅전.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